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謹賀新年

母校의 榮譽、同門의 榮光



歲時的 香氣 그윽한 梅花. 『梅花의 꽃말을 아름다운 美德으로 비유하면서 詩人·墨客들로부터 으뜸가는 淸賞을 받았으며, 다른 꽃들의 濃艷보다는 安穩된 침묵속에서 풍기는 특유한 그 冷艷이 더 귀여움을 받는다』고 冠岳春秋子는 지적하고 있다. (사진)

冠岳春秋

새해 하늘에 밝은 해가 우주를 비추니 1989년 己巳年의 새아침. 비우선 기운이 새롭다. 마음이 즐겁다. 얼굴들이 환하다. 서로의 복을 빌며 덕담들이 오간다. 차례도 지내고 세배들도 하고 민속놀이 손전맞이, 마당나들이 등, 연중 최고의 화목한 분위기와 新正의 慶氣가 地球村 50억의 인간사회를 물들여주고 있다.

祝福의 그런 이름다운이 새해·새봄을 깨우치게 하는 가운데, 앞날을 바라보는 希求와 希望 또한 간절해진다. 또저운 마음이 이어지고 손길이 또아리고 燈籠이 켜지면서 한 가정의 和愛와 人사회의 平和·온 세상의 光明을 기원하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 祈禱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리라 생각한다. 가장 진실한 마음이 합쳐지고 출저운 心聲과 우는 얼굴이 최대한으로 표현됐을지 또한 분명하다. 가슴속에 서려있는 새로운 희망이란 것처럼 人間생활의 한걸음은 轉換期에 至한 것이니, 上向의 발전이자 進行美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엔 너무나 明暗이 심했다. 政權교체와 서울을 震盪시킨 北方과의 큰 진전, 출기찬 경제성장 南北관계의 새 조짐은 모두 金價가마리를 이었다. 하나 반면 黨利黨略에 사로잡혀 寧日이 없던 政局의 격동·대도 파괴 폭력·난동으로 陷落된 社會一角의 혼란상, 그 무질서속에서 中心이 흔들리는 價値체계의 崩潰와 급진적 改革의 확산은 安定속에 차분한 改革을 추구한 當仁者의 心을 상을 불어넣어 버렸다.

새해의 祈願들엔 이제 그 非를 버리고 是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進取의 志를 높이 奮發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社會庭園의 德과 生의 實을 가꾸자는 바람일 것이다. 희망은 그런 가운데서 成熟의 꽃이 눈부시고 보다 우람한 열매 또한 따르기 때문이다.

사관자의 하나인 梅花의 꽃말은 사회정의의 芬芳할 그 아름다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 古詩를 통해 詩人·墨客들로부터 으뜸가는 淸賞을 받았으며, 다른 꽃들의 濃艷보다는 安穩된 침묵속에서 풍기는 특유한 그 冷艷이 더 귀여움을 받는다. 『鄭道傳의 梅川賦를 빌어 그 아름다움 덕』의 진수를 가려보면...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참 뜻을 품은 채

아름다운 德, 開花있기를

빛은 장중하다. 흰 비단치마의 소매도 곧고 羽衣에 무지개빛이 들는다. 미녀와 같이 살았이 하고 유과 같은 열매의 열매가 풍만하다. 표현하. 몸을 날려 은하수에 떠있는 것 같고 群仙의 어깨 위에서 춤추는 것 같다.』
매화의 眞境을 읊은 千古絶調는 그 박에도 수 없이 많다. 申叔舟翁의 花仙의 詩인 細竹清梅綠水涯 東風春意滿香閣 〔를〕 必得해서 林和靖 蘇東坡 龔禪 鄭真 趙孟頫의 梅花 詩속에서도 흥매는 배마든 매화는 언제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물시경과 노를 띄운 채 흐른다. 그로 인하여 歲時의 향취는 그윽하였고 잊지 못하는 고향. 잊어야 할 世事, 窓 밖으로 한하는 푸른 새꿈과 意氣의 나래가 파르르 오갈리고 때로는 생동하곤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梅香에 심취하면서 15만 우리 同門들 앞에 春秋子는 淸々히 새해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들의 新年門前으로 진해지는 한해의 메시지를 생강해보고 싶다. 부디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푸르름과 열매가 가득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 人間家族들의 소원을 간추리면서 轉換期에 至한 歷史의 무거운 새 짐을 사양없이 풀어가길 바란다.

사실 그렇다. 國運의 새인면에 새 봄을 바라볼 때, 오늘날엔 내일도 아니라 이 사회의 主眼은 金의 難局을 앞다져 치우려고 하는 德의 사회 轉換期에 至한 것이다. 德의 나라를 期必해야 할 馬力은 우리의 어깨 위에 달리지 않는다. 또 北方進出은 물론이고 21세기의 驚異 앞에서 세계의 中心圈을 장악해야 할 韓國의 도전이다. 韓國의 도전을 至한 우리들을 자부하고 무방할 것이다.

同窓會報은 이런 事勢앞에서 모든 校友에게 거듭 그 지 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다. 大任에 임하면 會員여파의 마음과 마음을 잊고 希望과 希望의 友情을 연결시키고 母校와의 유대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하려는 뜻 또한 명백히 해두고 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 同窓會가 하나로 뭉쳐진지 20돌이 되는 紀念碑의 年次이다. 歲月은 제자 리진들을 하지 않는다. 감회가 새삼 짙어진다. 또 그 세월앞엔 榮辱도 富貴도 한계를 벗지 못하느라 眞實이나 우리 母校 서울대학교의 位相안은 우리 學友 모두들의 精神의 기술·人生의 聖堂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 學堂에서 함께 태어난 우리 同門들! 부디 새해의 幸運과 榮光 있으시라.

祝 서울大同窓會發展

簡然而日章

『君子』는 길으로 보기에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어두운 것 길이나
속이로 「날마다 새롭고, 밝게 진보한다」는 中庸에서 나온 말.

己巳元朝趙淳



〈49년 商人卒・副總理 經濟企劃院長官〉

新年頌詩

당 신

1989년 새해 아침

李 晟 馥

해마다 당신은 나를 찾아옵니다. 날마다 나는 높고 추해 집
니다. 해마다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높고 추해 집
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끄럽습니다.

해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올 때면 깎아지른 산 위에 갇히
인 연못의 푸른 물이거나, 밤새 눈 내려 온 마을 집들이 북극

의 곱처럼 어여쁠 때오, 아무도 밟지 않은 흰길 같은 것이었
읍니다.

해마다 나는 당신에게 부끄럽습니다. 때 묻은 손으로 당신을
안을 때면 당신은 나를 닮아 더러워집니다. 당신의 가슴이 나
의 가슴과 구별이 안 갈 만큼 더러워지면 어느덧 나는 부끄러운
음까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당신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얼마
나 높고 추해졌는지 알지도 못할 테지요. 해마다 당신이 내
게로 오지 않는다면 지금쯤 나는 얼마나 더 높고 추해졌을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당신은 내게로 옵니다. 깎아지른 산 위의
푸른 물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흰 길처럼…… 사랑하
는 당신, 나는 당신의 가슴을 마구 더럽힐 일 겁이 납니다.

오, 내년 이맘때면 덩치덕지 묻은 때처럼 내 가슴에 남을
당신!

〈78년 人文大卒・啓明大교수〉

會館減價償却費 1억5백만원 책정

領東지부 定總성료	천6백여만원의 적자요 인인 발생했는데, 이는 회 로 實貨수입에서 충당키 였다. 收益事業부분에 예산을보 여, 수입지부에서 會館 인대료가 8천81만2천8 백원, 그리고 유전자(관 리비)가 6천7백15만2 천원으로 총 1억4천7 백96만4천8백원이다. 반 면, 지출지부에서는 수 도당열비 5천1백52만원 세금과 공과 4천1백85 만원, 도서봉신비 2백18 만원, 소도품비 2백34만 원, 화재보험료 2백21만 원, 청소비 3백90만원, 각기상각비 1억5백19만 3천8백92만 3천7백27원으로 하여 총 24만원이 포함되어 있 는 △기게차지 50만원△ 공기구비품 1백만원으로 총 1백50만원이다. 이에 따라 冠岳會의 89 년도 총 예산은 收入1 억6천7백46만4천8백원 支出2억9천7백74만9 천7백27원으로 하여 총
-------------------------	--

會則 일부 개정, 組織 활성화

母校－單大동창회 実務책임자로 구성

텍사스支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嶺東지부 정기총회 광경

| | |
|--|--|
| (獸醫大・藥學전문대학교수) 석한 가운데 신문규간사 지역내지명인사 다수가 참 | 본회 嶺東支部(회장崔容桓)는 지난 12월6일 하오6시 강릉정포비치호텔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會則 일부를 개정했다. |
| 이날 총회는 崔容桓지부회장(農大・영동전문대 회장)을 비롯하여 崔珏圭(文理大), 工大・민정대학(홍지근·강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崔지부회장은 인사사를 통해 지역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참여의식및 동창회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고 최갑규등 문은 격려사를 통해政界에서도 서울대 출신들이 해심의를 이루고 있을 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지역에서도 우리 동문을 이 모든 분야에서 핵심 인물이 되자고 강조했다. |
| | 최문용동문 또한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주역이 되었다. |
| | 이어 장영준간사(商大・관동대학교수)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토의사항에서 최익인부를 개정, 조직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
| | 토의사항이 끝난후에는 부패 만찬을 들면서 탄수화물 가게가 있었고 팔자로 판친용동문(音大・강릉대교수)의 선창으로 |

| | | | |
|---------------|----------------------|--|--|
| 은 회에서
는 지난 | 회의에서
선한 가운데 열린 이부 | 조각과 실무책임자가 참
금로동기회설립,金重善화
고려에서 金鍾云부총장,
삼일부회장)의 주재로도
李聖秀친척원정(문화
등소령에서 열렸다. | 會員名簿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찬위원회가 지
12월9일 낮12시 가
진 소령에서 열렸다. |
|---------------|----------------------|--|--|

친화 텍사스支部(회장 박종현)는 친화회를 열고 새 친구들을 구회장을 孫泰永(송태영)(70, 大卒)을 신봉하고 있다. 대卒)를 신봉하고 동 임원진들을 새롭게 편했다. 이에 따라 총무는 鄭東龍(정동룡)(77년 大卒)이 맡게 되었고 支部 새 주 소도 아래와 같을 예정이다.

○MEADOWS BUI
LDING DRUG 5644
MILTON Suite 12
DALLAS, TEXAS,
75206.

| | | | | | | | | | | |
|------|-----|---|---|-----|---|---|-----|------|-----|-----|
| 安企部長 | 朴世直 | 文 | 教 | 鄭元植 | 保 | 社 | 文 | 太俊 | 政務1 | 鄭宗澤 |
| 外務 | 崔浩中 | 商 | 工 | 韓昇洙 | 交 | 通 | 金昌權 | 法制処 | 玄鴻柱 | |
| 內務 | 李漢東 | 勳 | 資 | 李鳳瑞 | 遞 | 信 | 崔永喆 | 서울市長 | 高 | 建 |

| | | | |
|--|--|--|--|
| <p> 16세 부처를 받았다고
 들 일가동문을 보면, 부
 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趙淳(문) (49년 商大卒),
 의부부장관에 崔浩(중)문
 (56년 文理大卒), 비부
 부장관에 李漢東(문) (58
 년 法大卒), 재부부장관
 에 李揆成(문) (63년 商
 大卒), 문교부장관에 鄭
 元植(문) (54년 師大卒), </p> | <p> 125內閣개편에
 서 우리 同門이 정부의
 부처를 맡았다. 이
 들 일가동문을 보면, 부
 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趙淳(문) (49년 商大卒),
 의부부장관에 崔浩(중)문
 (56년 文理大卒), 비부
 부장관에 李漢東(문) (58
 년 法大卒), 재부부장관
 에 李揆成(문) (63년 商
 大卒), 문교부장관에 鄭
 元植(문) (54년 師大卒), </p> | <p> 상공부장관에 韓昇淳(문)
 (63년 行政大學院卒),
 의사부장관에 李鳳瑞(문)
 (55년 商大入學), 전설
 부장관에 朴昇(문), 근설
 商大卒), 보사부장관에 文
 大俊(문) (50년 醫大卒),
 교통부장관에 金昌權(문)
 (57년 文理大卒), 체신
 부장관에 崔永喆(문) (58
 년 文理大卒), 문교부장
 관에 崔秉烈(문) (64년 法
 大卒), 과거처장관에 李 </p> | <p> 祥義(문) (66년
 동원원장관에 李
 (53년 商大入學
 1장관에 鄭宗澤
 1장대에, 법
 玄鴻柱(문) (63년
 등이다. </p> |
|--|--|--|--|

大卒、九동문, 절부, 문(58)처장에
法大卒



祥懿忠肅(66년 藥大卒)
통일원정장관에 李拱九忠肅(53년)
(53년) 商大澤, 許甫
1장관에 鄭宗澤忠肅(58
년 法大卒), 법제처장에
玄鴻柱忠肅(63년 法大卒
등이다.

이와함께 국가안정기회
무장에 朴世直忠肅(60년)
文理大卒)이, 서울시장에
는 高建忠肅(60년 文理
大卒)이, 각도급 인사로
함께 참여하였다.

장에게 공로감사패를
리고 모교 교수총
을 맞은 金海東 安海均
崔鍾起 교수에게는 축하
넉품을 각각 증정했다.

비판다 政界에서는 선거법
의 早期改正이 5 共非 정인
算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견해도 있는 모양이
나 선거제도의 개정은 政
黨의 건진한 발전에 불기
미한 것이요 革新政黨의
制內級收를 위해서도 요건
한 것이므로 빨리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또 地方議會議員選舉法制
定에 있어서도 衆知를 모
아 할 것이다. 地方議會
議員選舉의 경우에도 政
推薦을 배제한 것이 아니
라 政黨黨員이 임후보하
록 할 것이요 임후보하 政
黨의 토착화할 이루어야 하
겠다. 政黨後補者推薦의
무에도 地區黨代議員들이
舉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政黨의 민주化를 도
하도록 할 것이다. 地方議
會議員選舉의 경우에는도
學區制로 할 것이나 中選
學區制로 하는 것이나 大選
學區制로 할 것이나 가
는 것인데 地方議會議員
의 비율 小選舉區制로 하고
國會議員選舉는 中選舉區
大選學區比例代表制로 하
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
다. 만약에 둘 다를 小選
學區制로 하는 경우 道·
特別市議員과 國회의원과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서 住民政治의 민주화를 기
하고 민주정치가 정착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며 政

에 속원사인으로 후
해온 同窓會館의 역
적인 준공식이 거행된

타임스理事
—英亞국어
그를 창간했
외국의 중
서비스와
계

[illegible]

[illegible]

健康酒飲論

치지 않는 정도의 酒은 스포츠를 하소 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주위 환경의 오염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음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유발한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1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인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성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성은 마음의 순수함과 정직함에서 오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흐려지고 정직함이 사라진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할 것인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健康교실 21

홍문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2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3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健康교실 21

홍문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4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5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6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7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8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9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10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11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실내植物的 문제점

12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길이다.

새해에도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年會費 내주시분

(理事: 11월17일 ~ 12월15일까지)
(會員: 11월17일 ~ 12월15일까지)

※ 人名 밑의 괄호 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會長 團

▲副會長 金在淳 50만원
▲副會長 鄭宗澤 50만원

常任理事

▲工科大學 崔鍾浣 20만원
▲看護學科 楊恩淑 10만원
▲藥學大學 禹東一 20만원
▲文理科大學 崔永喆 20만원

理事

◇工科大學

▲姜榮國 63 대우중공업중앙연구소장
▲孔大植 60 대한설비공업(주)대표
▲權炳實 57 한국방송공사기술연구소장
▲金正雄 57 대우중공업(주)고문
▲朴元植 58 국제전선(주)사장
▲朴載冕 60 현대건설(주)부사장
▲李根柱 58 삼명전축사사무소소장
▲李忠秀 58 대우전자부품(주)사장
▲林光洙 52 임광도건(주)회장

◇農科大學

▲金億年 66 세기어패럴대표
▲嚴基德 49 (주)보영사사장
▲李在石 58 한국양묘협회전무이사
▲李載晚 60 용인정신병원관리원장
▲李正漢 57 경상대학교총장
▲崔贊植 62 국토관리청장

◇文理科大學

▲金時俊 58 서울대인문대교수
▲閔英基 61 경희대우주학과교수
▲申鉉千 55 전경상대학교총장
▲李元雨 51 경희대학교수
▲李正煥 58 동원자연연구분석실장
▲李海範 64 대우자동차(주)전무
▲鄭助英 64 과총상임부회장
▲鄭宗植 56 대한준설공사사장

◇美術大學

▲白泰昊 51 이화여대미대교수
▲李信子 56 덕성여대미대교수

◇法科大學

▲姜慶植 61 전재부부장관
▲姜錫祥 부총상시대표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해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활성화 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年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同窓會가 벌이는 事業에 일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倍前의 성원을 바랍니다.

一會費내역一

| | |
|--------------------|-------|
| · 一般會費 | 1만원 |
| · 理事會費 | 5만원 |
| · 常任理事 | 10만원 |
| · 常任理事 <회원 3천명 이상> | 20만원 |
| · 監事 | 30만원 |
| · 副會長 | 50만원 |
| · 會長 | 100만원 |

▲柳熙春 55 한일이화(주)대표이사

◇獸醫科大學

▲金範來 56 농수산부동물검역소장
▲李淳雨 56 대한수의사회
▲李承旭 부문동물병원

◇藥學大學

▲權景坤 60 현암약국
▲李圭煥 54 성심약국
▲池亨浚 57 서울대생약연구소

◇音樂大學

▲金重石 52 단국대음대학장
▲趙三珍 62 건국대음대교수

◇醫科大學

▲金基永 59 제일병원원장
▲金周完 53 서울대병원방사선과
▲金炯鎔 56 국립의료원안과

◇行政大學院

▲姜俊浩 71 국회특별위원회
▲金仁柱 68 서울지하철공사고문
▲柳京得 72 명지대무역학과교수

會 員

◇人文大學

▲姜英선 57 강인숙 56
▲高炳남 60 권기욱 66
▲권성우 60 김상호 78
▲김시근 57 김정숙 66
▲김주원 79 김화근 60
▲김현배 56 동성신 60
▲송현준 55 신성근 54
▲신현태 55 심양섭 57
▲안경도 52 안종환 76
▲윤상의 55 이기화 80
▲이명우 60 이상오 57
▲이성희 46 이선규 61
▲이성덕 55 이용남 66
▲이우행 54 이종선 79
▲전팔근 54 장희규 59
▲소광희 하신규

◇社會大學

▲강해운 60 김건우 76
▲김규봉 66 김기범 55
▲김용재 64 김종면 53
▲김진국 54 김철진 55
▲문영태 64 박동준 53
▲박성희 62 박태순 54
▲박태영 54 소병운 64
▲손진준 52 신재민 52
▲안국신 59 어수선
▲이근형 54 이기욱 54
▲이기태 77 이재구 60
▲이원수 55 이현필 61
▲이재완 76 이준호 60
▲전수봉 52 정동현 52
▲정양호 52 조덕현 52
▲조용홍 59 조현국 76
▲주광렬 51 최영규 62
▲한기주 황기호 62
▲황영신

◇自然大學

▲구용욱 77 구자영 73
▲권도현 79 김수동 76
▲김신원 66 김영환 79
▲김오순 66 김용환 79
▲김윤석 66 김인식 54
▲김재우 76 김진석 53
▲김진오 79 김혜란 60
▲김희선 52 민정렬 55
▲박경배 60 박경범
▲박판익 54 박준웅 66
▲배문일 54 배부기 62
▲서의훈 76 서흥대 55
▲송도영 55 신두철 55
▲신용원 58 오신주 66
▲윤병국 79 윤영열 66

[illegible]

